| 현불 논단 |

선업 스님
불교상담개발원장



공멸의 탐욕 '이기심'

이태원 클럽發 집단간염 사태 심각
코로나19 확산 위험 또 다시 '증폭'

박노해 "'나쁜' 어원은 '나뿐'" 저술
'나뿐'이란 이기심이 현 사태 초래해
청년기 나타나는 '반사회성'도 원인
일반인 '내로남불' 같은 경향 설명돼

'我癡·我見·我慢·我愛' 자아 이기심
부처님 "오염된 마음, 괴로움 따른다"
'연기적 공동체'를 지혜 등불로 삼길

이태원 클럽 발 집단감염 사태가 'n차 감염'을 일으키며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1세 영아에서 80대 노인까지 남녀와 세대를 가리지 않고 확진되는 등 코로나19 위험이 다시 증폭된 것이다.

'잠시 멈춤'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공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이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가 되었다 싶어, 생활방역 단계인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자마자 슈퍼급 전파자를 몰고 코로나19가 재등장했다.

당혹스럽게도 확진자수 제로를 허문 이번 사태의 주역으로 젊은이들과 그들의 클럽 문화가 등장했다. 실내라는 막힌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결과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에게 전염이라는 민폐로 나타났다. 더불어 확진자가 나온 회사는 폐쇄 및 분산 근무라는 유탄을 맞게 되었다.

이번 확산 사태를 보면서 '나쁜'의 어원은 '나뿐'이라고 한 박노해 시인의 글과 나쁜 사람은 없는데 나뿐인 사람은 있다는 우스개가 떠올랐다. 나뿐인 이기심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거나 남의 이해는 돌아보지 않는 마음'으로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데 고장난 사고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이번 사태는 결국 사고가 고장난 사람들이 일으킨 '나뿐 신드롬'의 한 전형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 신드롬을 설명할 수 있는 용어로 '반사회성'이 있다. MMPI라는 다면적 성격검사의 4번 척도의 이름이다. 대부분 청(소)년기에 이 척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 시기에는 충동을 즉각적으로 만족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행동해 버리거나 섣부르고 잘못된 판단으로 위험을 무릅쓰는 경향이 높게 형성된다. 젊은이들이 사회적 약속을 가볍게 무시한 배경의 하나가 아닌가 싶어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이런 경향성은 '내로남불'의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차에 타고 있을 때는 늦게 가는 행인을 욕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경적을 울리는 운전사를 욕한다' 든지 '남이 천천히 차를 몰면 소심운전이고, 내가 천천히 몰면 안전운전이다'라는 등의 왜곡된 인식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들을 위해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모든 행위는 마음(마노)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이 만들어 낸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오염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리. 수레가 황소를 뒤따르듯이"

유식에서는 앞에서 언급된 '마노'라는 마음을 제7식이라 부르고 이기심이 있는 자아의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나'라고 하는 강력한 아집이 본원인 이 의식에는 4가지 번뇌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아치(我癡)로 무아의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마음이며, 두 번째는 아견(我見)으로 '고정된 나'가 있는 줄로 잘못 알고 일으킨 소견, 자기주장, 고집 등을 말한다. 세 번째인 아만(我慢)은 자기가 잘났다는 교만, 거만, 자기 우월감을 말하며 마지막으로 아애(我愛)는 자아에 대한 집착, 애착 그리고 자기만을 최고로 여겨 사랑하는 이기심을 의미한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삼계(욕계·색계·무색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모든 이들을 참자유로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코로나19로 움츠러든 몸과 마음을 현란하듯 어두운 무명의 클럽에서 해소하려던 젊은이들의 몸부림은 대중의 고통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아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이럴 때일수록 모든 존재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적 공동체 관점을 지혜의 등불로 삼아 사회적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겠다.

社 說

상월선원 결사정신 계승 필요

지난 2월 10일 '문없는 문'이 열렸다. 지난해 가을 녘에 시작된 아홉 스님들의 무문관 정진은 엄동설한 겨울이 지나 매화내음이 느껴질 때 쯤 위례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마침표를 찍었다.

결사 회향 후 3개월 지난 지금, 결사 정신 계승과 선양을 위한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가장 주목 받는 것은 다큐 영화인 '아홉 스님'으로 롯데시네마에서 5월 27일 개봉한다. 다큐 '아홉 스님'은 상월선원 결사대중으로 참여한 아홉 스님들의 극한 수행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담아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서울 수국사가 5월 8~10일 진행한 '상월묵언 템플스테이'도 눈길을 끈다. 상월선원 결사를 회향한 9인의 스님 가운데 한명이었던 주지 호산 스님이 결사 정신을 대중과 함께하기 위해 기획한 것이다. 상월선원 청규를 묵언과 휴대폰 반납, 사찰 밖 외출 금지, 수국사 제공 음식만 섭취 등 현대인에 맞게 변화했다.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입재 이후 한달여 만에 5만 명 이상 사부대중이 현장을 다녀가고 스님들의 수행을 응원하며 자신들도 정진한 결사는 흔치 않다. 이 같은 조용한 곳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부수고 천막 무문관을 설립해 석달을 오롯이 수행한 아홉 스님의 정진력에 감화됐기 때문이다.

문화와 신행으로 상월선원의 결사를 이어가는 것은 환영할만 한 일이다. 앞으로도 사부대중은 상월선원의 천막결사 정신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를, 뜨거웠던 에너지를 어떻게 한국불교 중흥으로 연결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불교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나눔의집 논란, 성장·발전 계기돼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이 때 아닌 운영논란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공교롭게도 '정의기억연대' 논란 시점과 겹치면서 '위안부 피해 지원단체'를 향한 시선이 싸늘하다.

나눔의집 일부 직원들이 국민신문고에 제기했다는 민원은 '후원금 의혹'과 관련돼 있다. 후원금 관련 의혹은 신뢰도와 직결된다. 자체시설로 건립돼 30년 가까이 피해할머니들을 보호·케어하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한길만을 걸어온 나눔의집이기에 그 상처가 더 깊다.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진행된 광주시청 감사와 법인 내부 감사에서 '횡령'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경기도청의 특별지도점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더 지켜볼 문제다.

무엇보다 이번 논란에는 나눔의집의 잘못이 분명히 존재한다. 운영규정 미흡부터 비록 소액이지만 용도와 다른 보조금 사용 등은 철저한 운영관리 부족을 엿보게 한다. 시설과 법인 간 공간 및 인력 분리, 후원금 계좌 분리 등 지적사항도 마찬가지다. 후원금 횡령이 없었더라도 법적 기준에 미흡한 운영시스템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이번 논란이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상처를 딛고 개선하고 보완해 어디에 내놔도 당당한 운영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고충도 있을 것이다. 사실 나눔의집은 사회복지법상 양로시설이지만, 일반 시설과 달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확산 등이 나눔의집의 주요한 활동이나, 정작 이에 대한 근거는 사회복지법과 규정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나눔의집은 변화해야 한다. 더 멀리, 더 깊이 내다보며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질 때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과거보다 우월한 사람이 되라

바람 좋고 햇살 좋은 날, 북촌을 걷다가 어느 담벼락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 하려고 고민하지 마라. 지금의 나보다 잘하려고 애쓰는 게 중요하다."

무심하게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누군가가 쓴 글입니다. 경쟁으로 내몰린 현대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글입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선 다른 누군가가 실패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강박 관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아 왔고, 사회 전체가 경쟁 의식을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승리 아니면 패배, 승자 아니면 패자 이런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하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서 이기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남을 이겨야 살아남는다는 정글의 법칙이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경쟁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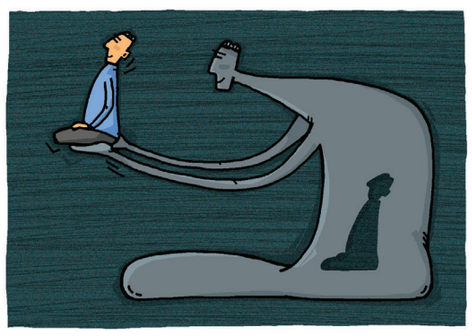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방식으로 경주로를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고, 자신의 승리를 위해 누군가 패배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젠 무한경쟁이 아니라 무한 향상 혹은 무한 전진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무한 경쟁은 욕망에서 출발해 자기 이익과 돈을 위해서 경쟁토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 향상이 되면 자신의 일에 의미와 가치가 있음을 알기에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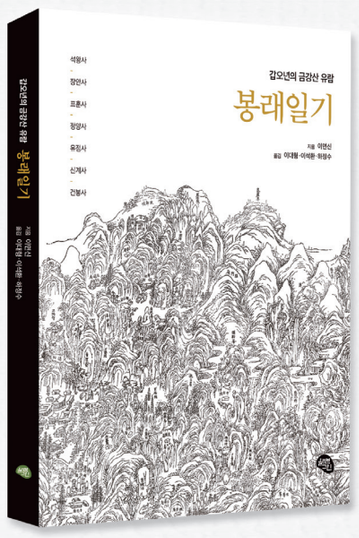
그러다보면 존경 받게 되죠. 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의미를 알고 일한다면 돈과 명예는 저절로 따라 오는 것이며, 이것은 정당한 돈과 명예입니다. 이는 나와 남을 이롭게 합니다. 무한 경쟁은 돈과 명예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해치는 역기능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서로 인드라망의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불가에서는 나도 이기고 상대도 이기는 상생(相生)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둘 다 살아남는 생존 방식이라고 합니다.

남들보다 더 잘 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어제의 나보다 더 향상된 자신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죠. 경쟁 않고 이기는 것은 자신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껏 발휘한 자신의 최고 수준을 뛰어넘는 것, 과거의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지장사 회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봉래일기
갑오년의 금강산 유람
1894년, 승려가 쓴 '금강산 여행기'… 새롭게 발굴
여정 속에 기록된 불교문화사적 가치 돋보이는 책
불교의 영산, 금강산! 아쉽게도 승려가 쓴 여행기는 거의 남지 않는 상황에서 청운(淸雲) 이면신(李勉信)의 《봉래일기(蓬萊日記)》가 새롭게 발굴·번역되었다. 이 책에 기록된 승려로서 저자의 행적과 여정은 불교문화사적 연구 사료로 이목을 잡기에 충분하다. 또 이 책에 게재된 석왕사·장안사·표훈사·정양사·유점사·신계사·건봉사 등의 사찰 배치도에는 전각·당우의 수와 위치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어, 당시 사찰의 실제 모습을 유추하고 사찰 복원 자료로도 이용할 수 있는 점에서 실증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면신 지음 | 이대형·이석환·하정수 옮김 | 200쪽 | 값 19,000원



인간, 석가모니를 만나다
내가 본 석가모니불의 발자취
인간으로 오신 석가모니부처님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기셨을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면서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다 가신 석가모니불! 1986년 인도 쿠시나가라의 열반상을 처음 친견하며 품었던 저자의 생각이다. 그래서 저자는 인도 곳곳에 남아 있는 부처님의 유적지를 돌아보며 웅장했을 옛 건축의 풍광을 상상하기 보다는 중생 교화의 참모습을 되새기고, 동시대 불교인의 실천을 강조한다. 부처님의 일대기에 관한 저술은 많지만, 검소한 생활과 부지런한 습관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성찰의 여정이라는 점이 다른 '부처님의 일대기'와 비교해 돋보인다.
최종웅(혜정) 지음 | 364쪽 | 값 20,000원



유식, 마음을 읽다
언어에 대한 인식적-문화적 해석
수행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마음을 반추해보는 책
개인적인 수행자의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이해할 수 있을까? 저자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사회 속에서 타인과 소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어에 주목하고, 유식학 문헌을 분석하고 종교언어이론의 관점에서 '마음 읽기'를 시도한다.
안환기 지음 | 272쪽 | 값 18,000원



폐불훼석과 근대불교학의 성립
근대 초기 일본불교 재활 연구
근대 일본불교가 폐불훼석을 딛고 일어서기까지에 대한 고찰
근대 일본불교가 불교학 연구에 힘쓴 여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광풍처럼 몰아치던 탄압 속에서 일본불교가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한편 저자는 침략 정책에 부응해 제국주의 첨병으로 전락했던 근대 일본불교에 대한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이태승 지음 | 400쪽 | 값 18,000원



사찰경영, 부처님 법대로 하면 잘된다
사찰경영·종무행정 전문가의 현실적 사찰경영전략 안내서
사찰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서, 생존과 지계(持戒) 사이에서 외줄타기 하는 동시대 한국불교의 힘겨운 상황을 분석하고, 재화·인사·포교·스님·사찰·종단 등 여섯 가지 분야에서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남이 없으면서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경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조기룡 지음 | 260쪽 | 값 20,000원

올리브그린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45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연구동 201호 olivegreen_p@naver.com 070-7574-8991 0505-116-8991